

조작된  
혐의로  
8년  
감옥

● 이 창 복

\*이창복님은 1967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1973년 말까지 고교교사, 대학강사로 강의했다. 1974년 민청학련사건 당시 인혁당재건위 건으로 구속되어 조작된 혐의로 8년 여를 복역했다. 1982년 3월에 가석방된 뒤에는 경기도 양평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다.

## 구속 전의 상황

본인은 196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에서 1973년 8월 말까지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강사 생활을 해 오다가 1973년 2학기부터 퇴직하고 박사과정을 밟기 위한 후속준비를 해 왔다.

## 연행 및 복역

1974년 5월 1일 수유리에 있던 자택에서 신체 건장한 수사요원에 의해 남산 중앙정보부 6국으로 연행되었다. 그후 수사관이 본인을 취조해 본즉, 짜여진 각본과 같은 내용의 진술이 나오지 않자, 서울대 동창으로 당시 경기여고 교사로 재직중이던 김용원 선생의 공소장(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는지 모름)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서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 이를 받아쓰도록 하여, 그것을 혹독한 고문에 의한 시인 절차에 의해 본인의 공소장이 완성되었다. 그로 인해 7년 10개월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복역을 하게 되었다.

## ‘인혁당 재건위사건’을 조작해야 했던 당시의 정세

① 1973년 10월 초부터 서울대를 비롯해서 전국의 각 대학에서 유신철폐 및 김대중씨 납치사건에 항의해서 가두시위가 격렬

히 일어났고

② 재야에서는 유신헌법 철폐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그 세가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일로에 있었으며,

③ 대학가에서는 3월 개학과 더불어 전국적인 대규모 학생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3,4월 위기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내비쳤다.

### ‘인혁당 재건위사건’ 조작의 필요성

순리를 좇아가는 정치에는 조작이란 필요치 않다. 허나 삼선 개헌 및 유신헌제와 같은 사상 유례없는 정치상의 역리를 만들어, 이를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는 데에 ‘인혁당 재건위사건’의 조작이라는 무서운 정치 드라마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의에 역행해서 장기집권할 야욕에 가득찬 공화당 정부에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민주화를 향한 개헌서명운동 및 대학생, 종교인, 노동자와 야당 국회의원들의 큰 힘의 결집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절박하게 필요했다.

정의로운 민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대열의 배후에는 용공세력이 있다고 엄포를 놓아야 국민이 겁을 먹고 그 대열에서 이탈 및 가세를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하여 민주화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어 정치적 안정을 꾀한 후에, 장기집권을 향해 순탄한 항해를 거듭하려는 것이 ‘인혁당 재건위사건’ 조작의 핵심적 의도였으며, 절박한 필요성이었다.

## 본인에게 반공법을 역계 된 경위

보통군법회의 법정 맨 앞쪽에는 군복을 착용한 육군소장 박 현식 재판장과 군법무관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헌병 들만이 에워싸고 있을 뿐 내외신 기자나 방청인이 전혀 없어 삼 업하고 음산하기 그지없었다.

이러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검사의 본인에 대한 공소장이 낭 독되었다. 헌데 본인의 공소장 내용에 반공법에 저촉될 만한 하 등의 행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수사기록이 없었던지 휴정 중에 보 통군법회의 법정 밑에 있는 사무실로 끌고 내려가 갖은 협박과 가혹행위를 통해 추가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던 바, 그 정황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검사가 심문하기를 “북한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 전원회의의 내용을 청취 수록한 노트를 김용원 피고로부터 받아보았지?”

본인은 북한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 전원회의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양심을 걸어 하늘에 맹세컨대, 김용원으로부터 그 노트를 전해 받은 적도, 그에 관해 들은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있는 사실 그대로 답을 했다.

그러자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면 구타는 물론 정강 이를 걷어차며, “순순히 받아들여! 그렇지 않으면 네 신상에 좋을 것이 없어”라고 위협을 가하면서 받아 적으라는 것이었다. 중앙 정보부 지하실에서 받은 포악스러운 고문과 인격적 모멸감이 다시 떠올라, 그의 말에 따르기로 하여 불러주는 대로 적고 서명 날 인을 하기에 이르렀다.



▲ 대구 현대공원묘원 인혁당 열사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는 유가족과 민청학련 동지들(2003년)

이처럼 재판 중에 군사법정 밑에 있는 사무실에 끌려가 추가 자술서를 쓰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유를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문 내용을 들어 밝혀볼까 한다.

판결문 672쪽에는 “...김용원과 회합하고 동인으로부터 ‘조선노동당 제 5차 전당대회 보고문을 인용하여 북한은 경제계획의 성공으로 농공업이 현대화되고 사상무장의 집결로서 국방력이 강화되고, 생산은 증가되어 선진국 수준에 달했는데 남한에서는 ...과감히 혁명을 쟁취해야 된다’ 는 제의에 감화되어 이에 동조, 이를 찬양하고...”라는 구절이 있다. 바로 위와 같은 “...제의에 감화되어 이에 동조, 이를 찬양하고”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자술서를 쓰도록 한 것이다.

검사의 폭력과 강압에 의해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서명 날인한 자술서가 본인에게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했던 바, 이것이 과연 법적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점들이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허위조작했음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관건의 하나가 되리라 확신한다.

## 국가보안법 적용의 허무맹랑함

비상보통군법회의 제2 심판부 본인에 관한 판결문 672쪽의 내용을 보면, 1973년 11월 초순 경 “조직 활동의 비밀유지를 위해 동시 회합을 피하고 1조에 김달수, 유진곤, 박중기, 2조에 김용원, 김종대, 이창복, 3조에 김용원, 황현승, 이창복 등으로 구분, 월 1회 각기 사정을 참작하여 시기와 장소를 결정함으로써 인혁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조직인 서울지도부와 같은 목적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있어 지도적 임무를 종사하고…”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제1조에 있어 박중기 선생은 조 편성에 가담할 수 없는 객관적 여건에 처해 있었다. 본인이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되어 알게 된 사실이거니와, 무슨 혐의를 받아서인지는 모르나 당시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지에 없었고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제1조의 비밀조직원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럴 수 없었기에 그는 우리와 함께 법정에서 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형을 언도받아 수형생활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허무맹랑하게 조작된 것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두번째 단서가 될 것이다.

또한 위 제2조와 3조의 인적 구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인 이창복은 2조에도 속하고 3조에도 속해 있다. 그들이 말하는 비밀조직이라는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판결문 내용대로 김용원 선생이 조직의 핵심이 되어 2조와 3조를 만들었다면, 본인이 중복되게 조 편성이 되었다는 점은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과문해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비밀조직에 있어서 동일인을 서로 다른 조에 중복해서 편성시킨 실례를 알고 있지 않다. 또한, 비밀 지하조직이라 함은 서로 다른 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 원칙일진대, 상술한 바와 같이 그렇지 않은 것은 허위조작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진실규명을 하는데 세번째 단서가 될 것이다.

## 현재 본인의 소회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되어 희생이 되신 분들이나 생존한 분들의 과거 삶을 되돌아 볼 때, 그들은 일신의 명예나 영달을 꿈꾸며 살지 않고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라는 지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형극의 길을 걸어왔다고 본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선인들이 살아온 올바른 길을 따라 불의에 야합하지 않고, 자유당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며, 5·16 군사 쿠데타 정권 하에서는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운동, 3선개헌 저지 투쟁과 유신철폐 운동 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대

오에 앞장서 왔다고 생각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조작, 발발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8년여의 옥중 생활뿐만 아니라 감옥에 나와서도 삶은 역시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삶, 온갖 시련이 와도 굽히지 않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강인한 열정이 불의에 야합하지 않고 간난의 세월을 견뎌오게 한 힘이였다.

군정이 종식되고 92년 문민정부, 97년 국민의 정부, 2002년 참여정부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신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인의 감회는 남달리 깊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으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책감에 가슴 아플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앞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잘못된 역사를 낱알이 파헤쳐서, 본인을 비롯하여 고통받은 모든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역사의 올바른 토대가 다져지길 충심으로 바라는 바이다.